

소식

기관단체

■ 위생도계육 유통정책 추진

농림수산부는 위생도계육 유통정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실시키 위해 성수기를 앞두고 관계기관에 공한을 보냈다.

이 공한내용은 '87 축산진흥사업계획 및 실시요령과 가축위생 관계관회의('87. 3. 6) 지시사항에 의거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한 도계처리방법을 준수하여 위생닭고기는 반드시 머리, 발, 내장을 제거 후 포장유통 되도록 할 것이며,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도계수수료 덤핑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나. 도계육 반출규정을 준수하여 타 시·도 반출은 특급 도계장에서 냉장, 반출토록 할 것이며 검사증명서 및 반출 통보서를 정확히 기재, 발부하여 계육수급 및 부정육 유통 단속에 차질없도록 할 것.

다. 계육유통 구조 개선을 위하여 위탁도계에서 자체도계로, 야간도계에서 주간도계로 점차 개선토록 계도하여 도계장이 닭고기의 계열화 생산주체로서 유통 근대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

라. 자체 검사원의 위생관리 및 검사 상황을 수시 확인 감독할 것이며 도계육의 냉장유통체계를 확립하여 하절기 위생닭고기의 위생처리 공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마. 시·도 실정에 따른 자체 세부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와 협동으로 밀도계 및 주정도계육 유통에 대한 집중 및 수시단속에 임할 것이며, 당부에서도 상습우범지역과 도계장에 대한 불시단속 및 점검에 임할 예정임.

■ 제46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개최

지난 4월30일 오후 2시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제46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중앙협의회 위원 및 간사,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 그리고 축산단체 등이 참석하여 꿀벌 전염성질병 방역대책, 토끼질병 예방대책 및 홍보, 닭류코싸이토준병 예방대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강화 방안 등 기타 현안문제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다.

■ 축협중앙회 직제개편

— 서울시지회 신설, 구매·유통본부장제 —

축협중앙회(회장 명의식)는 경제신용사업량의 신장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 통폐합 등 기능보장을 위해 직제를 개편했다.

직제개편의 주요골자는 경제사업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키 위해 사업본부장제를 도입, 사료부와 축산지도부를 관장하는 구매사업본부장과, 유통부와 조사부를 관장하는 유통사업본부장을 신설하고 현행 이사가 겸임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지역내 금융점포가 점차 늘어남에 따른 금융 경제사업을 관장할 서울시지회 신설을 비롯하여 축협도지부와 농협군지부의 혼동 우려를 감안, 각도지부를 도지회로 개칭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능면에 있어 실기연수강화와 기관 운영합리화를 위해 서울소재 연수원과 안성소재 시범 목장을 통합하여 축산종합연수원으로 개편하였으며 축산지도부 사업지원과를 폐지, 진흥과와 기술지원과에 통합했다.

동중앙회는 이밖에 금년안으로 서울에 5개소, 지방도시에 5개소 등 10개 금융점포를 개설할 계획이다.

■ 대한양돈협회 자체회관 마련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용)는 지난 3월 10억 원을 투입, 강남구 역삼동에 건평 460평 규모의 자체회관을 마련했다.

동협회는 앞으로 이 회관에서 양돈산업을 뒷받침하는 각종 연구소와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한 시장수요 창출 및 창조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새 청사는 역삼동에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로 역삼전철역이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발전이 활발한 곳이다.

한편, 동협회는 지난 85년 1월 대의원 총회에서 청사를 마련하는 기금을 조성시키로 의결한 후 현재 5억 5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다.

■ 한국종축개량협회 인사단행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송찬원)는 지난 4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를 단행했다.

〈승 진〉

대기축개량부장 : 김동혁

대기축개량부 과장대리 : 김윤식

〈전 보〉

대기축개량부 과장겸 기획전산과장 : 이문연

■ 한국낙농육우협회

-부회장에 홍석철씨 선임-

한국 낙농육우협회(회장 김의수)는 지난 4월 14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결원된 부회장에 홍석철씨(수원목장 대표)를 선출했다.

이로써 동협회는 처음으로 부회장에 육우업자를 선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육우분야 조직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동협회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금년도 대정부전의 기본방침을 쇠고기·유제품 수입금지, 집유일원화 실시 등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마늘요리강습 및 전시, 시식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회장 왕준련)는 1987. 4. 23.(목) 오후 2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마늘요리강습 및 전시,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날 요리강습회는 농림수산부와 농협중앙회 후원으로 마늘요리 40종이 전시되었으며 시식회도 가졌다.

인사말에서 왕준련회장은 “육류요리에는 마늘을 듬뿍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고기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맛을 돋구며 소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늘과 닭고기는 잘 어울리는 재료로 이날 전시회에도 풋마늘닭백숙, 풋마늘닭살찜, 통마늘닭찜 등이 선보였다.

■ 한국단미사료협회 수출입업 허가

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이선우)는 지난 3월 30일자로 무역거래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 허가를 득했다.

이로써 동협회는 사업 목적 수행에 필요한 수출 또는 원료 및 기재를 수입할 수 있으며, 회원업체의 수출입 업무대행도 할 수 있게 되었다.

■ 식생활개선 실천성공사례 모집

농림수산부 양정국 양곡조사과에서는 식생활 개선을 솔선 실천함으로써 가계안정이나 건강증진에 도움을 얻었던 체험이나 이웃 가정의 체험담을 내용으로 한 식생활개선 성공사례를 모집하고 있다.

응모자격은 제한없으며 원고매수는 200 자 원고지 120 매 정도로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농림수산부 양정국 양곡조사과로 접수시키면 되는데 당선작 발표는 6월 15일 KBS-TV 방영 및 개별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부 양정국 양곡조사과(전화 : 503-7292)로 문의하면 된다.